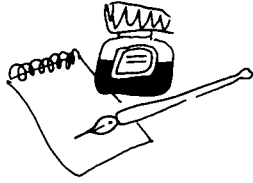


편집 후기



이번호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리를 많이 비워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일을 꾸려 나갈수 밖에 없었다.

케도이탈의 복잡한인 이유로 그동안 윗분들은 진척과정에서 예기찮은 복병을 치렀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가을호는 계절과 시기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표지를 꾸며 보았는데 제10회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에서 포스터 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을 응용해서 표지화했다. 그리고 수필·수기부문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악몽의 그날」등 주옥같은 글들을 골라 올가을의 풍성한 과일처럼 실어 보았다. <泰>

어느 여름인들 덥지않은 여름이 있을까만 올여름은 늦더위까지 유난히도 극성을 부렸다.

여름호 내고 돌아서며 곧 시작된 가을호 준비지만 휴가기간에다 불조심 포스터·표어 및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행사가 잇달아 발간작업은 더디기만 했다.

여름내내 우리 모두를 무척도 괴롭히던 보험시장 개방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어 본다.

무역전쟁의 전초전일듯 여겨지는 이 미묘한 시점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1년 지은 농사를 거두어 조상께 제올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 한가위가 바로 「방재와 보험」 발행일과 이웃하고 있다.

그간 옥고를 주신 집필자와 「방재와 보험」을 아껴 주신 독자들에게 명절인사를 함께 드린다. <根>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5 / 가을호
계간/비 매 품

<통권제 27호>

등록 / 마-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5년 10월 1일

인쇄 / 1985년 9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